



만나고 싶습니다

전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장

이정운

공직 36년동안 오로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소신 있는 일처리로 정평이 났던 이정운 (67) 전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장. 고교시절부터 좌우 명인 '일근천하무난사 백인당중유태화(一勤天下無難事, 百忍堂中有泰和)'를 실천할 수 있었던 초석은 아마도 늘 '정직'을 강조하셨던 어머니의 가르침과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가진 신앙의 힘이 아니었을까 싶다.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고 백번 참으면 집안에 큰 평화가 있다는 의미의 좌우명이다. 가훈 또한 '하느님 은총아래 겸손하게 감사하며 사랑으로 살자'이며 애창곡 역시도 '사랑으로' 일만큼 그 삶은 온통 감사와 사랑, 정직의 궤를 벗어난 예가 없다. 사랑을 실천하며 멘토의 역할을 마다 않는 이 국장을 용인 시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한정식집에서 만나보았다.

정년퇴임 하신지가 꽤나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일상은 어떠 하시며 주로 무슨 일로 소일 하시는지요?

2002년 6월말로 36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끝냈으니 벌써 꽤 된 셈이군요. 실은 2003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강릉대학교 식물응용과 학과에서 초빙교수로 곤충학분야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자에는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과 다소 소홀하였던 가족과의 화목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의 오랜 공직생활 내내 모든 업무를 원리원칙대로 하시며 공사가 분명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재임시를 회고하신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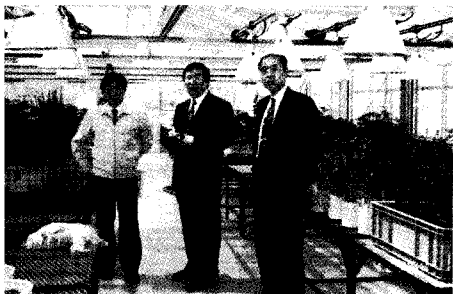
회고라고까지 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저 가능하면 농업인 입장에서 농사에 보탬이 되

“농약의 순기능 제대로 이해해야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가능”

는 연구를 하고자 한 것과, 생력화 일환으로 작물병해충종합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자연+작물(저항성)+농약+천적 등의 유기적 조합 관계를 정립 하고자 노력한 당시가 기억에 많 습니다. 또 당시 농약품목고시시험 설계와 평가회를 업계와의 진정한 소통기회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고 농약 산업 관계 관들에게 농촌진흥청 작물 보호분야 업무를 보고하여 농사에 꼭 필요한 작물 보호제가 신속히 개발 보급되게 하였던 일도 선명합니다.

월간 '생활과 농약'지의 전신인 '농약정보'지의 편집자문 위원으로 활동하신바있으신데 당시 상황과 월간지가 나아 갈 방향에 대해 고견을 주신다면?

대농업인 정보 중 우선순위를 정해서 과감한 설명과 함께 홍보가 미흡한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수요자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어떤 농약의 문제점이 거론 될 때 비로소 해명하는 것보다 사 전에 해소함으로써 만시지탄의 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다케다 쓰쿠바 연구소(1994.4.25)



원예연구소 소장시 방문객과 함께(2000.5.23)

국내 농약산업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며 재 입시와 퇴임 후의 농약을 보는 시각은?

아직 세계적 톱 수준이라 보긴 어렵지만,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고 보여지며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장기적으로 는 농약을 생산수단의 일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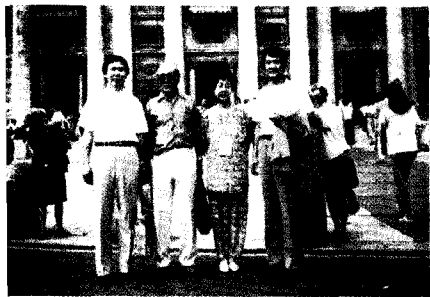
농약관리위원회 살충제분과위원회,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활동 등 작물보호제와 관련된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시대 상황에 따라 우수한 작물 보호제의 순 기능을 보호하고 대국적인 측면에서 약효는 물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선발, 보급하는데 앞장서서 참여 하였으며 특정 약 제의 약효보다 후대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약제를 보급하고자 하였습니다. 단순 효과보 다 미래 지향적 효과를 중시했다고나 할까 요?

만 생각하지 말고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통 관심사의 차원에서 상대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 및 산업(수출)으로 여겨 국민은 물론 국 가의 정책적 배려가 더 많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농약산업은 맹목적 반농약농법 확산 등으로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경쟁력제고를 위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무엇보다 농약수요자인 대부분의 생산자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농약안전성에 문제가 없



로마 바티칸 베드로 성당 앞에서 손기정 옹과 함께 (1987.9.6)



이태리 버말구 국제 심포지움에 경북대 권용정 교수와 함께 참석 (1987.9.7)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수시 토마스 밀러교수와 함께 (1994.4.12)

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약은 일반 기계 등 여타 산업제품과는 개발 단계부터 다르고 생물을 다루는 즉, 자연과 상호관계를 이루며 제품이 개발된다는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따라서 개발단계에서 안전성 검증이 수년간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약의 순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해야 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용자가 확신을 가져야 하며 일부에서의 오용이 관행농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업계도 친환경 농업에 기여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여 사용자나 소비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농약 및 농산물 안전성과는 무관하게 막연한 불안감을 지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로서 고견을 주신다면?

농약은 국내에 처음 도입 사용 될 때부터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명칭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살균제, 살충제 등 용도별 구분에서 '살(殺) 자를 붙임으로써 은연중 농약이 무서운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만의 확대해석일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름을 바꾸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기약 소화제 영양제등 일반 약품들은 인체에

도움을 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검토, 분석 할 때가 아닌가 봅니다.수급에 급급하여 간과한 부분은 없었는지, 안전성 문제농약에 대한 뒤늦은 조치가 있었던 품목은 없는지 등등...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가 높을 때 산업은 지속 가능하며 정직한 사회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

퇴직 후 뒤늦게 골프에 입문하시었다 들었습니다만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실은 1985년부터 새벽에 집 근처 골프 연습장에서 1시간여씩 운동을 해 왔습니다. 체력 단련을 위해 평생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라 생각하여 시작하였습니다. 덕분에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던 좋은 친구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골프는 정말 정직하다는 점에서 제 마음에 꼭 듭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접하시는 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지요?

농약안전성은 개발단계는 물론이고 사용단계에서도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농약 개발 보급에 맞춰 적용대상 작물에 적량을 적기에 사용하는 지혜와 관행농산물의 안전성을 신뢰하는 소비자의 노력 등 3박자가 어우러진다면 더욱 강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서로 믿고 이해하는 밝은 사회를 만드는 주역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Y